한국 주식시장의 모멘텀(momentum) 현상은 직관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과거 수익률이 상승 또는 하락했던 주식은 그 경향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는다는 모멘텀 현상은 일견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weak 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를 위배하는 증거처럼 보인다. 물론 이는 엄밀한 검증을 요구한다는 점을 받아들이더라도, 적지 않은 연구가 모멘텀 현상의 행태주의적(behavioral)관점에 주목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주식에 대한 정보력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이후에서야 비로소 모멘텀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김상환 2012, 장지원 2017).

외환위기 이전에는 오히려 과거 수익률이 높은 승자 포트폴리오(winner portfolio)를 매수하고, 수익률이 낮은 패자 포트폴리오(loser portfolio)를 매도하는 무비용(zero investment) 포트폴리오를